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55 호)

06년 7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코)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형제회 합동 입회. 서약식

지난 6월 25일(일) 5개 형제회 (OC, RH, WM GB, SD) 합동으로 성 토마스 성당에서 한국에서 오신 김창재(다미아노) 신부님의 주례로 입회및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약식 사진은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paces.msn.com/ksfo>

* 서약자 [12명]:

김 외희(엘리사벳), 윤 상우(아그리пп나)
 홍 병숙(율리안나) -OC 3명-
 기 복연(바오로), 기 옥순(루피나)-SD 2명-
 이 지화(요안나), 이 화성(아네스)
 임 복희(크리스티나) -RH 3명-
 박 명자(막달레나) -WM 1명-
 박 성관(아오스딩), 박 해희(수산나)
 이 건영(프란치스코) -GB 3명-

* 입회자 [34명]:

강 승자(루시아), 김 광자(테레사)

김 병실(소피아), 김 성희(테레사)
 김 춘옥(스텔라), 김 희수(레지나)
 마 수연(안나), 박 경옥(모니카)
 임 민웅(베드로), 최 화자(안젤라)

-OC 10명-

강 성호(도미니코), 강 윤환(마리아)
 오 정은(율리안나) -SD 3명-

최 덕희(베로니카), 최 태환(아우구스티노)

-RH 2명-

김 준호(베드로), 김 인자(로마나)
 방 주희(비비안나), 방 한웅(루카)

옥 정희(바울라), 이 근수(루카)

이 보리나(보리나), 이 병례(마리아)

이 상득(리노스), 오 전화(아나스타시아)

홍 병오(디모테오), 홍 언재(테레사)

-WM 12명-

박 진의(로사리아), 신 경자(젬마)

신 상일(사무엘), 안 희자(테레사)

윤 명현(바오로), 조 경희(프란치스코)

하 농옥(헬레나) -GB 7명-

■ 형제회 점심 제공

오늘 형제회 점심은 이수경(안나) 자매의 7순을 맞이하여 이수경(안나)+용석(안토니오) 부부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회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종한(요한) 신부 방문

오늘 7/23일(일) 한국의 작은 형제회 초대 관구장 이셨던 이종한(요한) 신부님께서 저희 형제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환영합니다.

■ 고 박 미카엘 형제

지난 7월 1일(토) 토렌스 풀베 형제회 박 미카엘(관철) 형제께서 죽음의 자매를 맞이하여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미카엘 형제는 풀베 형제회 양성담당을 하였고 지병을 앓고 있는 중에 지난 4월 23일 단독으로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풀베 형제회에서는 그동안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원고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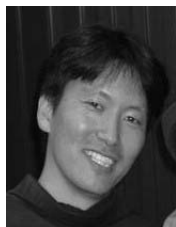
오는 08년도에 OC 형제회 15주년을 맞이하여 편집 위원회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형제회와 프란치스칸에 관한 수필, 시 등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 형제회 회원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형제회 월보 창간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은 위원회에 연락 바랍니다.

【프란치스칸 러시아 선교】

결국 재판은!

4번째 이야기

김 용철(도미니코) 신부



작은 아파트의 방 한칸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끝에 판사의 호명이 있었다. '김용철'을 부르고, 신상에 대한 간단한 확인 작업을 마친 후, 판사는 경찰로부터 받은 조서에 대한 긴 낭독이 있었다.

민사 법정은 우수리스크의 동네에 있는 아파트의 1층의 있는 건물이었다. 으레 긴장해야 할 법정은 아파트의 방 두개에 첫 번 째는 판사의 비서가 있었고, 마치 사무실 같은 다음 방이 법정이었다. 일반 책상 뒤에 앉아있는 판사와 검사쪽(아마도 경찰)의 텅 빈 자리와 함께 서로 다리를 내밀면 부딪힐 만한 거리에 놓인 의자 두개에 나와 변호사가 앉고, 나의 변론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이 마주 앉아 재판에 임했다. 내가 그런 법정과는 너무나 다른 러시아의 아담한 아파트의 한 방에서 내 생애에 처음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장점(?)이라고나 할까 다른 점은 판사가 읽어 내려가는 조서에 대한 통역을 해야하는 과제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다음 재판이 있는 관계로 인해 판사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변호사에게 주면서 통역과 함께 법정 밖(아파트의 복도)에서 숙지하라고 휴정을 한 후, 우리를 내보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미사(종교행사)에 부모나 부모 동의서 없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당 신부이며, 미사 집전을 하고 있던 내가 아이들을 성당 밖으로 내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 경찰 조서의 요지이다.

이런 내용의 조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다.

1. 경찰이 작성한 조소에 대한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조서에 적용한 법률 조항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조항이 적혀있었다.

- 경찰의 실수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이러니이다.

2. 본당 신부는 종교법상 종교단체의 법적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러시아 법이 몇 차례 수정하면서 외국인들이 종교단체의 법적인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미

종교단체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외국인인 내가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 미성년자의 종교행사의 참석해 대해 성당이 법을 어겼다면, 러시아 시민권자이며 성당의 법적 책임자(러시아 시민권자)인 다른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성당 법적 책임자에게 고소나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변론할 예정이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아이들이 성당 미사에 참석한 사건의 경위는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 후, 판사는 변호사를 통해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 문의하였다. 변호사는 이미 준비한 변론을 한 후, 본당신부인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기에 성당의 법적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내가 러시아의 우수리스크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의 하나는 현재의 협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지금의 성당 법적 책임자인 블라디미르씨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성당의 모든 일들을 술선수범하면서 성당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뒷 바라지해 주신 분이시다.

지금도 기억난다. 블라디미르 형제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첫날 방문한 곳이 우수리스크에 있는 교도소였다.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하는 첫 번째 교도소 사목이 있는 지 약 3년이 지났다. 우리는 교도소에서 흔히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과일을 사들고 매주 마다 교도소 아이들을 방문하곤 하곤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아이들 문제’로 인해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다.

"아이들이 성당에서 미사를 참석했을 때, 제가 통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블라디미르 형제님의 답변은 도미니코 신부가 미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부모 동의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들을 성당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고, 외국인인 주임 신부는 법적

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기에 모든 잘못은 성당의 법적 책임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 잡혀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았던 병사에게 던진 한 마디가 아니었던가? 자신의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사슬에 묶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상기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닌가? 이곳 러시아 땅에 와서 내가 해야 할 말을 다른 분이, 나를 위해 스스로 옴가미에 잡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판사는 더 이상 변론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복도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날짜와 사건의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판결에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긴 판결문을 듣는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치며....

【프란치스칸 묵상】

가짜 목숨이란...

호 가를로(명환) 신부

가짜 목숨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죽자사자 기를 쓰고 내 주장을 피며 살았던 나의 자존심, 욕망,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가짜 목숨을 버리는 데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너무도 오래동안 우리의 부정적 내면에 쌓여 온 것이어서 한번의 결정과 실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신명기 독서에서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중 하나를 순간 순간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승의 하늘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승의 하늘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짜 목숨을 부여 잡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고통이 그것을 버리는 데 오는 고통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가짜 목숨을 버릴 때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늘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이지요.

참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프란치스코의 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가짜 목숨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얻은 자유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기를 망각하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노력을 해 간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에 힘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2]

자기 답게 사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한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든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한다.

- 법정스님 -